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이종임* · 도미향**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의 일반적 경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1~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린이집 어머니 233명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Pearson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 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전체 평균이 보통 수준이었고, 코칭역량 수준과 영아의 정서지능 수준은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의 하위요인은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중 '의사존중역량'과 '자기성장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을 확인해 봄으로써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양육 스트레스, 코칭역량, 정서지능

논문제출일: 2021. 11. 24

최종심사일: 2021. 12. 15.

게재확정일: 2021. 12. 27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영유아교육보육전공 박사과정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o Mi Hyang, Namseoul University, Daehak-Ro Seonghwan-eup, Choongnam, Korea. 31020. E-mail: domi@nsu.ac.kr

I.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핵가족 및 저출산이라는 가정 구조로 인해 가정 내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최미선, 2021).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는 삶의 형태와 특히 교육의 형태를 변화시켜 영유아시기부터 특히 조기교육이 과열되면서 어린 유아들도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지적인 측면에서의 자극은 과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21세기에는 지적 지능만이 사회적 성공에 직결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된다는 의미에서 지적지능만으로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서 지능을 주시했다(이기숙, 2002). Salovey & Mayer(1990)은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서 정서와 지능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정서지능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정서지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경험, 환경을 통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발달에 있어 기초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기인 영아기에 정서지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선애, 2013).

정서적 기술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비롯된다(Mayer & Salovey, 1997).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교사는 부모이고, 아이는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모든 것을 배우고 영향 받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는 영아와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 그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등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김진경·강은희, 2017).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은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hner, 1980). 부모의 양육행동 중에서도 특히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중 내부요인인 어머니의 인지,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어머니의 양육지식(김영주·송연숙, 2007), 애착경험(김미성·전귀연, 2003), 우울정서(전경숙·조은영, 1997), 양육효능감(안지영, 2001), 양육스트레스(김미숙·문혁준, 2005)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실제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송미혜·송연숙·김영주, 2007)고 하였다. 어머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스트레스 양육을 경험한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급함, 당황, 좌절감,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을 느끼는 정도를 양육스트레스라고 한다(김기현·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상적인 양육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어릴수록 높으며, 특히 출산 후 3년간 영아기 동안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경·서주현·배회분, 2016).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정서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정서지능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스트레스가 감소가 영아의 정서지능에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2013). 또한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양육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 양육태도의 반응성과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권정은·정미라·박수경·이방실, 2012). 자녀의 정서지능에 부모관련 변인, 특히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는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강민정, 2013).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코칭역량이다.

코칭은 고객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을 두고,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여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며 이를 통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로 성장시키는 파트너십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도미향 외, 2011). 코칭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Vygotsky(1962)가 말한 근접 발달지대를 확장시켜줌으로써 내적인 힘을 키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고 하였다(정현희, 2007). 그러므로 아동의 일차 양육자인 부모가 코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자녀가 본래부터 지닌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지하며, 경청과 강력하고, 감화가 있는 강력한 질문을 통해 자각이 일어나 영유아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도미향, 2017).

부모 코칭역량은 부모가 스스로 긍정적인 자존감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능력, 그리고 부모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도

미향, 2020). 즉,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부모 코칭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영아기 때의 부모역할을 수행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코칭역량에 관한 국내연구에서는 유아의 리더십(홍은영, 2015), 행복감(이미옥, 2016), 창의적 인성(정숙희, 2016),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정현희, 2018), 놀이성(박유란, 2019), 정서조절능력(김수민, 2019), 자아존중감(김갑순·조경희, 2021) 등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서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정서지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정서지능에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으며, 부모의 코칭역량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는 많았으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을 확인해 봄으로써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부모코칭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 및 영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 및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1~2세 영아의 어머니 260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 취지와 내용을 안내 후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어린이집에서 영아편에 안내글과 함께 보냈고 전체 회수된 설문지는 233부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9부는 연구에서 제외하고 214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양육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PSI : Parenting Stress Index)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질문지의 내용을 홍희란(2002), 임진미(2013)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이연숙(2016)이 타당화한 총 22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으로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연숙(2016)의 연구에서 Cronbach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계수는 .90이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척도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1,14,15,17,18,19	6	.81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스트레스	3,4,6,11,20,21,22	7	.79
부모의 고통	남편과의 관계 및 경제적 스트레스	2,5,7,8,9,10,12,13,16*	9	.71
합계			22	.90

*역채점 문항

2) 어머니의 코칭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는 코칭역량의 도구로 도미향과 김근주와 이경주(2019)가 개발한 영유아기 부모코칭역량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32문항으로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코칭역량의 신뢰도 계수는 .9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코칭역량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사회적 역량	자녀의 사회적 역량 코칭	1,2,3,4,5,6,7,8	8	.84
의사표현역량	자녀의 의사표현을 위한 코칭	9,10,11,12,13	6	.82
의사존중역량	자녀의 의사존중을 위한 코칭	14,15,16,17,18,19	5	.85
자기성장역량	자녀의 재능 및 성장을 위한 코칭	20,21,22,23	4	.86
성장촉진역량	자녀의 민감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코칭	24,25,26,27,28,29	6	.88
관계형성역량	자녀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코칭	30,31,32	3	.72
합계			32	.95

3) 영아의 정서지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영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1996)가 수정 제안한 개념 모델을 토대로 김경희(1999)가 제작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영아정서지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재수정한 김효진 (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5문항으로 문항으로 어머니에 의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영아정서지능의 신뢰도 계수는 .91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정서지능 평정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Cronbach’s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아의 정서지능 측정도구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수 있는 능력	1,2,3,4,5,6*,7	7	.79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자신의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능력에 대한 정서	8,9*,10*,11*,12,13*,14*,15*,16*	9	.70
자기정서의 이용	자신의 정서를 이용할수 있는 능력	17*,18*,19,20,21,22,23,24,25,26,27	11	.83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타인에 대한 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능력	28,29*,30,31*,32,33,34,35,36,37	10	.71
성인과의 관계	성인에 대한 관계 능력	38,39,40,41,42	5	.77
또래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능력	43,44,45	3	.67
합계			45	.91

*역채점 문항

2.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영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적 검증은 유의수준 $\alpha=.05$ 에서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과 영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 등 연구변인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 기술통계량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연구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전체 평균이 2.96($SD=.59$)로 보통 수준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3.29($SD=.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고통 2.92($SD=.59$),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2.74($SD=.74$)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칭역량 수준은 전체 평균이 3.83($SD=.5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사회적 역량이 4.13($SD=.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존중역량 3.99($SD=.58$), 자기성장역량 3.8($SD=.67$), 관계형성역량 3.69($SD=.65$), 의사표현역량 3.59($SD=.59$), 성장촉진역량 3.52($SD=.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지능 수준은 전체 평균이 3.57($SD=.4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에서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이 4.29($SD=.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인과의 관계 3.74($SD=.61$),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3.50($SD=.47$), 자기정서의 이용 3.37($SD=.58$),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3.34($SD=.55$), 또래와의 관계 3.33($SD=.72$) 요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의 기술통계량

(N=214)

구 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3.29	.76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2.74	.74
	부모의 고통	2.92	.59
	전체	2.96	.61
어머니의 코칭역량	사회적 역량	4.13	.50
	의사표현역량	3.59	.59
	의사존중역량	3.99	.58
	자기성장역량	3.84	.67
	성장촉진역량	3.52	.66
	관계형성역량	3.69	.65
	전체	3.83	.50
영아의 정서지능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4.29	.52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3.34	.55
	자기정서의 이용	3.37	.58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3.50	.47
	성인과의 관계	3.74	.61
	또래와의 관계	3.33	.72
	전체	3.57	.41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r=-.30, p<.001$)을 보여,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영아의 전체 정서지능 간에도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r=-.34, p<.001$),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r=-.24, p<.001$), 부모의 고통($r=-.21, p<.001$) 요인 순으로 영아의 정서지능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 간에는 어머니의 자

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r=-.29, p<.001$), 자기정서의 이용($r=-.30, p<.00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r=-.15, p<.05$)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어머니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r=-.21, p<.01$),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r=-.41, p<.001$), 자기정서의 이용($r=-.35, p<.00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r=-.20, p<.01$)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고통 요인은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r=-.28, p<.001$), 자기정서의 이용($r=-.23, p<.0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r=-.14, p<.05$)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

(N=214)

구 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																	
2.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74**	1																
3.부모의 고통	.66**	.69**	1															
4.전체	.89**	.91**	.89**	1														
5.사회적 역량	-.17	-.30**	-.19*	-.25**	1													
6.의사표현역량	-.15*	-.26**	-.16*	-.21**	.69**	1												
7.의사존중역량	-.18**	-.26**	-.19**	-.24**	.70**	.66**	1											
8.자기성장역량	-.12	-.18**	-.12	-.16*	.66**	.62**	.67**	1										
9.성장촉진역량	-.23**	-.28**	-.20**	-.26**	.55**	.65**	.60**	.74**	1									
10.관계형성역량	-.16*	-.18**	-.13	-.18**	.64**	.64**	.66**	.63**	.70**	1								
11.전체	-.20**	-.30**	-.20**	-.27**	.85**	.84**	.85**	.85**	.84**	.82**	1							
12.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05	-.21**	-.05	-.12	.48**	.33**	.48**	.44**	.38**	.30**	.48**	1						
13.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29**	-.41**	-.28**	-.37**	.33**	.37**	.33**	.35**	.35**	.31**	.40**	.27**	1					
14.자기정서의 이용	-.30**	-.35**	-.23**	-.33**	.33**	.31**	.44**	.43**	.48**	.42**	.48**	.43**	.45**	1				
15.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5*	-.20**	-.14*	-.18**	.37**	.31**	.40**	.44**	.45**	.44**	.47**	.44**	.39**	.63**	1			
16.성인과의 관계	-.01	-.07	-.03	-.04	.32**	.32**	.39**	.39**	.30**	.30**	.40**	.31**	.24**	.45**	.62**	1		
17.포래와의 관계	-.03	-.06	-.02	-.04	.21**	.21**	.33**	.32**	.33**	.31**	.34**	.23**	.26**	.40**	.61**	.63**	1	
18.전체	-.24**	-.34**	-.21**	-.30**	.47**	.43**	.54**	.55**	.54**	.49**	.60**	.61**	.65**	.84**	.85**	.68**	.64**	1

* $p<.05$, ** $p<.01$, *** $p<.001$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60, p<.001$)을 보여,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과 영아의 전체 정서지능 간에도 어머니의 자기성장역량($r=.55, p<.001$), 성장촉진역량($r=.54, p<.001$), 관계형성역량($r=.49, p<.001$), 사회적 역량($r=.47, p<.001$), 의사표현역량($r=.43, p<.001$) 요인 순으로 영아의 정서지능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영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 간에도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의사표현역량,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성장촉진역량, 관계형성역량 요인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성인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21, p<.01 \sim r=.48, p<.001$),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r=.48, p<.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의사표현역량은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r=.37, p<.001$)과, 어머니의 의사존중역량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r=.48, p<.001$)과 어머니의 자기성장역량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r=.48, p<.001$) 및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r=.48, p<.001$)와, 어머니의 성장촉진역량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이용($r=.48, p<.001$) 과, 어머니의 관계형성역량은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r=.44, p<.001$)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r=-.27, p<.001$)을 보였고, 하위요인들 간에도 어머니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성장역량, 부모의 고통과 자기성장역량, 부모의 고통과 관계형성역량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5, p<.05 \sim r=-.30, p<.001$), 사회적 역량과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요인 간에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VIF
	B	SE			
(상수)	2.13	.23		9.2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10	.04	-.15	-2.63**	1.08
어머니의 코칭역량	.45	.05	.56	9.98***	1.08

$R^2=.38, \text{adj } R^2=.37, F=64.74^{***}$

** $p<.01$, *** $p<.001$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은 영아의 정서지능을 38% 정도 설명하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4.74,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15, t=-2.63, p<.01$)을 미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56, t=2.3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은 표준화계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N=214$)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SE			
	(상수)	1.97	.34		5.78***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9	.06	.14	1.50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17	.07	-.24	-2.46
		부모의 고통	.12	.07	.13	1.59
		사회적 역량	.32	.10	.30	3.15**
	어머니의 코칭역량	의사표현역량	-.14	.08	-.16	-1.75
		의사존중역량	.26	.08	.29	3.09**
		자기성장역량	.10	.08	.13	1.29

		성장촉진역량	.12	.08	.16	1.54
		관계형성역량	-.14	.07	-.17	-1.86
$R^2=.33, \text{adj } R^2=.30, F=11.06^{***}$						
		(상수)	2.91	.38		7.66 ^{***}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1	.07	.02	.21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27	.08	-.36	-3.54 ^{***}
		부모의 고통	.00	.08	.00	.05
	어머니의 코칭역량	사회적 역량	-.05	.11	-.04	-.43
		의사표현역량	.16	.09	.17	1.80
		의사존중역량	.00	.09	.00	-.05
		자기성장역량	.14	.08	.17	1.66
		성장촉진역량	-.01	.09	-.01	-.10
		관계형성역량	.06	.08	.07	.77
		$R^2=.27, \text{adj } R^2=.24, F=8.30^{***}$				
		(상수)	2.41	.38		6.38 ^{***}
자기정서의 이용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7	.07	-.09	-.98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16	.08	-.21	-2.14 [*]
		부모의 고통	.05	.08	.05	.56
	어머니의 코칭역량	사회적 역량	-.11	.11	-.10	-1.00
		의사표현역량	-.14	.09	-.14	-1.59
		의사존중역량	.21	.09	.21	2.25 [*]
		자기성장역량	.12	.08	.14	1.39
		성장촉진역량	.21	.09	.24	2.33 [*]
		관계형성역량	.12	.08	.14	1.50
		$R^2=.34, \text{adj } R^2=.31, F=11.43^{***}$				
		(상수)	2.16	.32		6.71 ^{***}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0	.06	.01	.06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05	.06	-.09	-.84
		부모의 고통	.00	.07	.00	.00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	.05	.09	.05	.50

		의사표현역량	-.11	.08	-.14	-1.49
		의사존중역량	.08	.08	.09	.96
	코칭역량	자기성장역량	.11	.07	.16	1.52
		성장촉진역량	.13	.08	.18	1.67
		관계형성역량	.14	.07	.19	1.98*
$R^2=.26, \text{adj } R^2=.23, F=8.03^{***}$						
		(상수)	1.74	.44		3.9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6	.08	.08	.77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03	.09	-.03	-.31
		부모의 고통	.01	.09	.01	.10
성인과의 관계		사회적 역량	-.02	.13	-.02	-.18
	어머니의 코칭역량	의사표현역량	.07	.10	.07	.65
		의사존중역량	.24	.11	.23	2.26*
		자기성장역량	.22	.10	.25	2.26*
		성장촉진역량	-.04	.10	-.05	-.41
		관계형성역량	.00	.10	.00	.03
$R^2=.19, \text{adj } R^2=.16, F=5.37^{***}$						
		(상수)	1.55	.53		2.9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04	.10	.04	.43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03	.11	-.03	-.28
		부모의 고통	.05	.11	.04	.42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 역량	-.15	.16	-.10	-.94
	어머니의 코칭역량	의사표현역량	-.13	.12	-.10	-1.01
		의사존중역량	.26	.13	.22	2.06*
		자기성장역량	.12	.12	.12	1.04
		성장촉진역량	.17	.12	.16	1.36
		관계형성역량	.14	.12	.13	1.55
$R^2=.15, \text{adj } R^2=.12, F=4.14^{***}$						

* $p < .05$, ** $p < .01$, *** $p < .001$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을 33%정도 설명하였다($F=11.06,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에 의미있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역량($\beta = .30, t = 3.15, p < .01$)과 의사존중역량($\beta = .29, t = 3.09, p < .01$)이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사회적 역량이 의사존중역량에 비해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인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역량과 의사존중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은 높아지는 것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을 27% 정도 설명하였다($F = 8.30,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중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beta = -.36, t = 3.5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은 모두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은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을 34% 정도 설명하였다($F = 11.43,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beta = -.21, t = 2.14, p < .05$)이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는 의사존중역량($\beta = .21, t = 2.25, p < .05$)과 성장촉진역량($\beta = .24, t = 2.33, p < .05$)이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성장촉진역량이 의사존중역량과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에 비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어머니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수록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은 낮아지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존중역량과 성장촉진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자기정서 이용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를 26%정도 설명하였다($F = 8.036,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는 관계형성역량($\beta = .19, t = 1.98, p < .05$)이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관계형성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를 19% 정도 설명하였다($F=5.37,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는 의사존중역량($\beta=.23, t=2.26, p<.05$)과 자기성장역량($\beta=.25, t=2.26, p<.05$)이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에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기성장역량이 의사존중역량에 비해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인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존중역량과 자기성장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성인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요인들은 영아의 또래와의 관계를 15% 정도 설명하였다($F=4.14,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영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 요인 중에서는 의사존중역량이 영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beta=.22, t=2.0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존중역량이 높을수록 영아들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변인을 탐색하여 적절한 부모교육 및 부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 및 영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전체 평균점수가 2.96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코칭역량은 전체 평균점수가 3.83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의 정서지능은 전체 평균점수가 3.57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

레스가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한 김리진(2000), 편은순(2004), 임진미(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코칭역량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사존중역량, 자기성장역량, 관계형성역량, 의사표현역량, 마지막으로 성장촉진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우동욱, 김수민, 2019). 영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능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인과의 관계,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이용, 감정 조절 및 충동 억제능력, 또래와의 관계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 모두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코칭역량,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영아의 전체 정서지능 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정서지능 상관에 차이가 있다고 밝힌 김경선(2014), 강수지(2021)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어머니의 코칭역량 하위요인과 영아의 전체 정서지능 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정대현, 조명옥, 곽연미(2014)연구한 부모코칭역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공감능력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코칭역량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낮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은 높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일부 변인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유능성(강수지 2020), 부모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정서발달(강민정 2014)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어머니의 과보호와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옥배, 2014)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코칭역량의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 결과는 현대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녀양육에서의 어머니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아의 정서지능은 영아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정서지능이 높은 영아는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어머니의 양육참여와 코칭역량이 영아의 생애초기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코칭역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커다란 영향이 미침을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변인을 탐색하여 적절한 부모교육 및 부모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론과 의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과 아산 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영아의 정서지능을 어머니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고려할 때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아버지의 코칭역량,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2013).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스트레스가 영아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원·김상림(2018).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서공감이 만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 활과학회지, 27(5), 321-333.
- 강희경·김기현(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경선, 임지영(2014). 어머니의 마음의식,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아동 학회지, 35(3), 15-29.
- 김민숙(2014). 부모의 코칭역량 및 부모역할지능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예술놀이 활동이 만2세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2021).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의 매개역할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1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육아지원연구, 11(1), 5-28.
- 도미향·김근주·이경주(2019). 영유아기 부모코칭역량 척도 개발 연구. 코칭연구, 12(2), 61-80.
- 박성의·도미향(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탐색. 코칭연구, 10(3), 51-72.
- 박성의·도미향(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강화 부모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부모 교육연구, 16(1), 45-67.
- 박유란(2019). 부모코칭역량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수경(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코칭역량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경화(2016).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모-아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소영·이한우(201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자녀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 심리행동연구, 3(1), 63-79.
- 우동욱·도미향(2020). 부모코칭역량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7(1), 21-32.
- 윤연희·심숙영(2017).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 매개 효과 분석. 영유아보육교육연구, 1(1), 47-66.
- 윤혜영·원인숙(201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발달르프교육연구, 5(1), 41-64.

- 이선애(2013).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신체접촉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대현·조명옥·곽연미(2014). 부모코칭역량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공감능력간의 상관.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83-100.
- 정미라·최혜정·강수경(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3), 179-199.
- 정숙희·도미향(2016). 어머니의 코칭역량 및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9(3), 27-52.
- 조경희·김갑순(202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코칭역량 및 양육불안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14(3), 145-163.
- 조안나(2014). 유아의 환경변인 및 정서지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창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4(1), 49-70.
- 진정아(2018).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양육태도가 영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5(1), 27-53.
- 최미선(202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능력과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숙(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기본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398-409 .
- 홍은영·도미향(2017). 부모의 코칭역량이 유아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코칭연구, 10(3), 5-24.

Abstract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ompetency on Infant Emotional Intelligence

Lee, Jong-Im* · Do, Mi-Hyang**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trend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ompetency and to find out how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ompetency affect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infa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3 mothers of daycare centers with infant children aged 1 to 2. For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percentag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general trend of mother's parenting stress, coaching competency,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overall average of mother's parenting stress level was moderate, and the coaching competency level and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level were moderate or highe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ompetency were related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of infants. Third, when examined in detail through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urden on performing parental roles' among mothe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mother's coaching competency' and 'self-growth competency' ha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enhancing infants' understanding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firm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oaching capabilities to develop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ek practical directions for reducing parenting stress.

Key Words : Parenting stress, Coaching skills, Emotional intelligence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